

다함께 실천하는 녹색환경 도시 주력 '무주군가족센터' 새 출발

무주군, 환경 분야 주요사업 읍·면 소통회의 진행 사업 계획 공유

무주군은 올해 '군민이 그린(Green) 무주 미래, 다함께 실천하는 녹색환경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량 감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자원순환 재활용 확대, 그리고 △건강한 식문화를 형성해간다는 방침으로 사업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읍·면과의 소통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22일과 23일에는 무주읍을 비롯한 설천과 무풍, 적상, 부남, 안성 등 6개 읍·면에서 환경 분야 주요사업에 관한 소통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올 한해 환경 분야 추진 사업 중 읍·면 협조가 필요한 주요·신규 사업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던 것으로, '탄소중립 실천마을 선정 및 운영', '남은 농약 수거·처리 사업', '마을 환경 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수거단 운영',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대상 확대 사업',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

'탄소중립 실천마을 선정 및 운영(사업비 2천여만 원)'은 친환경 생활습관 정착을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 동향 희망마을을 선정해 밀착 환경교육과 실천 평가를 진행해 시상할 계획이다.

'남은 농약을 불법 투기하는 것을 막아 수질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2일과 23일에는 무주읍을 비롯한 설천과 무풍, 적상, 부남, 안성 등 6개 읍·면에서 환경 분야 주요사업에 관한 소통회의를 가졌다.

추진하는 '남은 농약 수거·처리 사업(사업비 2천여만 원)'은 마을이 자체적으로 각 읍·면 수집 일에 맞춰 폐농약을 거두면 이를 수거(환경위생과), 처리(전문처리업체 위탁)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또 '마을 환경 지킴이 운영(사업비 1억8천여만 원)'을 통해 마을 주민들을 직접 고용(6개 읍면 총 30명)해 마을 청소와 재활용품 분리·선별,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 안내·계도, 불법투기 감시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청소행정 서비스 질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수거단 운영(사업비 1억8천여만 원)'은 각 읍·면에 설치된 영농폐기물집하장과 농경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

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은 단력적으로 할 예정이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대상 확대 사업(사업비 4억 4천여만 원)'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지역을 읍·면 시가지권 내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대해 전용 수거함을 배치하는 것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완전한 분리·배출을 유도해 잔반을 줄이는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309동, 사업비 14억 6천여만 원)'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와 지붕개량을 지원 하는 것으로 올해는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거나 슬레이트 위 덧씌운 지붕을 처리하는 비용을 군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양봉산업 경쟁력 키운다

양봉 기자재 지원·장비 구입사업 추진

장수군이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해 기자재 지원 및 장비 구입사업 등 양봉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군은 올해 양봉 기자재 지원 및 장비 구입 사업 등에 총 2억 6,000만 원

을 투입할 계획이다.

위생적인 양봉 환경 조성으로 양봉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봉 농가에 벌통, 좌대, 화분 등을 공급하는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 3,000

만 원을 지원하며, 채밀기·개량벌 통 등 고령화 농가 등에 양봉 장비를 지원하는 양봉 장비 구입사업이 3,000만 원이 투입된다.

현재 장수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 농가는 2월 현재 74개 농가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양봉농가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무주군이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건강 무주'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될 2023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쏟는다.

무주군은 지난 24일 김희복 부군수와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예산 점검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실과별로 발굴된 국비사업은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마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무주군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등 40개 사업에 총 사업비 2,000억 원이 투입된다.

군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국가예

산 반영 전망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군은 이번에 발굴된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노력 개발 등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부터 기획실 등 20개부서가 관광, 의료, SOC사업을 비롯해 문화·관광·의료·산업·농림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 바뀜

무주군은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무주군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출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기존 명칭이 특정대상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가족센터가 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군은 은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서비스 공간인 '무주군가족센터'를 건립 중이다. 그동안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의 경우 현재 (구)군수관사를 리모델링해 이용 중에 있다.

하지만 30년이 경과된 건물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설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무주군이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무주군복합문화도



무주군가족센터 조감도.

서관 건립을 추진중으로 복합문화도서관은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가족센터가 함께 무주읍 최북미술관 근처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무주군가족센터는 사무실을 비롯해 언어발달실, 음악치료실, 장난감대여실, 공동육아나눔터, 교류소통공간, 상담실, 요리교실, 컴퓨터실, 교육실 등을 갖춘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올해 3월 착공예정이다.

가족센터 건립으로 센터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서비스 공간 및 지역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진안군은 군민들에게 분야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의 새로운 자기 계발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2022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오는 3월 2일부터 운영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코로나19 이후 군민 학습권 보장과 다양한 취미, 문화활동,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으며 교육과정은 ▲아동대상 그림책 주말놀이터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 6개 과정 ▲함께 성장하는 인문교양 2개 과정 ▲미래를 준비하는 직업능력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내달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장소와 세부 교육 일정은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근거리 생활권인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지역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행복학습, 성인문해 프로그램도 내달 2일부터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춘성 군수는 "전국 최초 평생학습 도시로서 명성을 지속하기 위해 군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평생학습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와 세부 교육 일정은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근거리 생활권인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지역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행복학습, 성인문해 프로그램도 내달 2일부터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춘성 군수는 "전국 최초 평생학습 도시로서 명성을 지속하기 위해 군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평생학습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 공모 선정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2년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대상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 및 체류 등에 필요한 정부지원을 받게 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제(4월 시행 예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 단기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군에서는 무주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급여 지급을 하고 무주군에서는 항공료와 산재보험료, 교통비, 간식비, 관리 인건비, 숙박 등 근로·복리후생 등에 관한 지원을 하게 된다.

농가는 고용에 대한 부담 없이 사전에 무주군·농협과 협의·신청한 이 용료(1일 8시간 9만 원)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황인홍 군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공모 선정으로 농번기 외국인 단기 인력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그간 막혀있던 농가 일손 공급에도 숨길이 좀 트일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4월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숙식과 농가 이동(운송비) 등이 농의소득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 이중 효과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농산물 신선도 유지기 지원사업 2차 접수

장수군이 예방, 일시저장 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시기 조절 등 수확 후 안전관리를 통한 상품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 신선도 유지기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실시한다.

농산물 신선도 유지기 지원사업은 저온저장시설에 농산물 부패방지를 농기계로 지원해 유해세균의 발생을 억제시켜 부패를 막는 것으로 군내 농산물 품질 향상 도모와 농산물 저장기간 연장으로 출하시기를 조절해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저온저장고를 보유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지원단가는 규격별 사업비의 50% 최대 185만 원을 지원한다.

군에서는 6,000만원을 투입해 20농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현직 경찰관, 코로나19 백신 맞고 16시간 만에 숨져

진안경찰서 소속 오모 경위(59)는 지난 2월 8일 오전 6시50분에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숨져 주위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오 경위는 지난 2월 7일 오후 2시30분 백신접종 후 집에 머무르다 8일 새벽 이상 징후를 느껴 타이레놀 2알을 복용하였고 출근을 하기 위해 근무복으로 옷을 갈아입던 도중에 방바닥에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 경위의 가족들은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9일 전북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진안=우태만 기자

오기문 경위는 지난 1989년 8월 5일에 경찰에 임용되었으며 그해 8월과 11월 전북대에서 진행된 '민중운동 탄압분쇄와 5공비리 책임자 처벌을 위한 89년 중대회'인 격렬한 시위현장에 진압요원으로 참여하였다가 머리가 함몰되는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후 전북대병원에서 치료 후 큰 후유증으로 고생하였으나 지금까지 경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모까지 모시고 살아온 효자로 알려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